

보도 일시	2022. 3. 7.(월) 09:00	배포 일시	2022. 3. 7.(월) 09:00
담당 부서 <총괄>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3231)
		담당자	사무관 김재원 (044-203-3236)

## 코로나19로 침체된 방송영상 분야 1천 명 일자리 지원

- 추경 예산 110억 원 투입,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80만 원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회장 허주민)와 함께 추경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방송영상 제작인력 1,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경 일자리 예산보다 65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3월 14일(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작가, 연출, 조명·음향·촬영 제작진 등 방송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대해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예비 종사자까지 확대, 기존 고용 인력의 채용 유지도 지원

특히 올해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송영상 분야 학과 졸업자, 방송작가 아카데미 등 방송영상 분야 교육 이수자, 국내외 영화제 입상자 등 예비 종사자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채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다만, 제작사, 종사자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 등은 3월 7일(월)부터 각 협회 누리집(www.kodatv.or.kr, www.kipa21.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제작 활동이 위축되면서 종사자는 실직, 제작사는 폐·휴업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올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 만큼,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 안내 이미지

담당 부서 <총괄>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3231)
		담당자	사무관	김재원 (044-203-3236)
<공동>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담당자	팀장	권진희 (02-554-1448)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담당자	매니저	이태효 (070-5216-6020)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2022년 3월 14일(월) ~ 9월 30일(금) 17시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예정)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된  
신규 인력 및 고용 유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하는 국내 중소방송영상제작사

### 지원규모

- 채용인력 1인당 월 1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한 접수
- 문의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 02-554-1448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 070-5216-6020

자세히 보기 ↗

